

# 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3월 2주 ~ 3월 3주)

## 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### 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 통계청,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 4.0% 발표(3.2)
  - 폴란드 중앙 통계청(GUS)은 2025년 4분기 폴란드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.0% 성장했다고 예비 추정치를 통해 발표
  - 2025년 4분기 투자는 전년 대비 4.7% 증가, 민간 소비는 4.2% 증가
  - 내수 역시 4.3% 증가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
  -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3.8%를 기록한 바 있으며,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
  - 2025년 연간 기준 실질 GDP 성장률은 3.6%로 추정되며, 2024년 성장률(3.0%) 대비 확대
  - 한편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을 3.5% 수준으로 전망
  - 전반적으로 투자 및 소비 증가와 내수 회복이 최근 폴란드 경제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됨
- EU 통계청, 2026년 1월 폴란드 실업률 EU 최저 수준으로 기록(3.5)
  - EU 통계청 Eurostat에 따르면 2026년 1월 폴란드 실업률은 3.1%로, EU 2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
  - 폴란드는 불가리아와 동일하게 3.1%로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, 체코가 3.2%로 그 뒤를 이음
  - 같은 기간 EU 평균 실업률은 5.8%로, 2025년 1월(6.0%) 및 2025년 12월(5.9%) 대비 하락하며 고용시장 개선 흐름 지속
  - 반면 핀란드(10.8%)가 EU 내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고, 스페인(9.8%)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

- 한편, 폴란드 통계청은 다른 통계 방식에 따른 2026년 1월 자국 기준 실업률을 6.0%로 발표했으며, 이는 2025년 12월(5.7%) 대비 상승한 수치
- 전반적으로 EU 기준에서 폴란드는 매우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

### ○ 폴란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1% 기록(3.13)

- 폴란드 통계청(GUS)은 2026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CPI)이 전년 동월 대비 2.1%를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
-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.1%로 동일했으며, 2025년 12월에는 2.4%를 기록한 바 있음
- 최근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수준에 근접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- 폴란드 중앙은행은 3월 6일 발표한 최신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2026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2.3%로 전망했으며, 2027년 2.4%, 2028년 2.3% 수준을 예상
- 이는 향후 수년간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

##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### ○ 폴 경제연구소, 우 경제 완만한 회복세 전망, 재건 비용 5,800억 달러 규모로 추산(3.6)

- 폴란드 경제연구소(Polish Economic Institute)는 러시아의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
- 2022년 우크라이나 GDP는 전쟁 영향으로 28.8% 급감했으며, 에너지 공급 차질, 인프라 파괴, 안보 리스크 등으로 회복 속도는 제한적인 상황
- 연구소는 2026년 우크라이나 실질 GDP 성장률을 1.8%로 전망하며, 이는 경제 활동 정상화와 일부 인프라 복구에 따른 완만한 회복 흐름을

## 반영한 수치

-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2026년 약 7.5% 수준으로 하락하고, 국제 지원이 지속될 경우 2028년에는 약 5%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전망
  -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은 국제 금융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, 2026~2028년 기간 동안 약 1,15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지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
  -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환보유액은 2026년 약 650억 달러, 2027년 약 7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환율 안정과 금융 시스템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
  - 한편,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및 산업 피해 규모는 우크라이나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며, 향후 10년간 주택·교통·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약 5,877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
  - 재건 비용이 단순 피해 규모보다 큰 것은 인프라 복구 과정에서 경제 구조 현대화와 신기술 도입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분석
  - 대규모 재건 수요는 건설·에너지·교통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폴란드 정부는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
  - 폴란드는 폴 투자무역청(PAIIH)과 PFR 그룹이 주도하는 'Team Poland for Ukraine'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, 보증, 보험, 프로젝트 정보 제공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운영 중
  - 우크라이나 경제는 단기적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머물 전망이나, 대규모 국제 지원과 재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현대화와 성장 기반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평가됨
- 우 공공부채 2,150억 달러, 금리 하락·만기 장기화로 재정 부담 완화(3.5)
-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공공 및 정부보증 부채 규모는 전월 대비 약 16.7억 달러 증가한 2,150억 달러로 집계
  - 부채 구조는 ▲대외부채 1,620억 달러(75.3%) ▲국내부채 465억 달러(21.6%) ▲정부보증 부채 65억 달러(3.0%)로 구성

-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G7 국가들로부터 ERA(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) 메커니즘을 통한 우호적 금융 지원 유입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부채 재평가 영향
- ERA 관련 채무의 상환 재원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될 예정
- 채권자 구조는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된 저금리·장기 조건의 우대성 차입이 약 65.9%를 차지
- 정부 부채의 가중 평균 금리는 2026년 1월 기준 4.51%로 전년(5.0%) 대비 하락했으며, 평균 만기는 약 13.3년으로 확대되어 중기 재융자 위험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됨
- 우크라이나 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, 낮은 금리와 장기 만기 구조로 재편되면서 중기 재정 안정성 및 상환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

###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#### ○ Virya Energy - EBRD, 폴 최대 722MW 태양광 단지 Sidłów 건설 추진(227)

- 벨기에 재생에너지 기업 Virya Energy는 EBR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, 폴란드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
- 양측은 합작 플랫폼 'Virya Renewables Poland'를 설립하고, 총 2G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공동 개발·운영할 계획
- 핵심 사업으로 Sidłów 지역에 722MW급 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예정
-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 최대 단일 태양광 발전시설이자, 최초로 400kV 송전망에 직접 연결되는 태양광 단지가 될 전망
- Virya Energy는 이번 협력을 통해 폴 재생에너지 개발사 Optima Wind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(태양광·육상풍력·에너지저장 포함)를 인수·실행
- EBRD는 Virya Renewables Poland에 약 85백만 유로를 투자하며 재무적·전략적 지원 제공
- Sidłów 태양광 단지는 2026년 초 착공 예정이며, 단기간 내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계획

- 본 프로젝트는 폴란드 송전망 운영사인 PSE와 연계되어 국가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
- 종합적으로, Sidków 태양광 단지는 폴란드 태양광 산업의 대형화·고도화를 촉진하고, 국제 금융·민간 자본 결합형 재생에너지 투자 모델을 정착시키는 대표 사례로 평가됨
- **폴 국유자산부, Polimery Police 관련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의 기대(3.2)**
  - 폴란드 국유자산부 Balczun 장관은 Polimery Police 프로젝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원만한 합의 가능성에 기대 표명
  - Balczun 장관은 현지 방송 Radio Szczecin 인터뷰에서 “현재 중재 절차 중이며, 생산 개시는 분쟁 해결 이후 가능하다”고 언급
  - 폴란드 외교부 및 주한 폴란드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해 협상 지원 중이며, 정치·외교적 차원의 개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
  - 2025년 8월, 프로젝트 시행사 Grupa Azoty Polyolefins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결정
  - 이후 현대엔지니어링도 지급보증 부재를 이유로 계약 철회를 발표하며 양측 간 분쟁 본격화
  - 2025년 12월, 현대엔지니어링은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, GAP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국제중재위원회에 최대 2,980백만 유로 규모 중재 신청
  - 정부는 현재 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구조 조정 및 인수 가능성 검토 중
  - 폴란드 최대 정유·에너지 기업인 Orlen의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“채권단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”고 언급
  - Balczun 장관은 Grupa Azoty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, 항만·철도·수소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신(新)화학 전략과의 연계 추진 의지 표명
  - 정부는 폴리올레핀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구조 재편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 목표

- Balczun 장관의 발언은 폴리머리 폴리체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중재·외교·재무 협상을 병행하며, 장기적 산업 전략과 연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평가됨

### ○ PGE, Gryfino 대형 ESS 입찰서 중국 업체 배제, EU 기업 중심 선정(3.2)

- 폴 최대 전력기업인 PGE는 그리피노 지역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(ESS) 구축 사업 입찰 결과를 발표
- 본 사업은 PGE Energia Odnawialna가 발주한 프로젝트로, Dolna Odra Power Plant 인근에 최대 400MW·최소 800MWh 규모 배터리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사업
- 입찰은 공공조달법에 따른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설계·시공 일괄 방식으로 추진
- 총 3개 업체·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, ▲SPEC BAU Polska - EL Professional 컨소시엄(1,142백만 PLN, 효율 86%) ▲LG Energy Solution Wrocław(1,355백만 PLN, 효율 83.6%) ▲Elektrotim - Jiangsu Linyang Energy Storage Technology 컨소시엄(1,162백만 PLN, 효율 84%)
- Elektrotim - Linyang 컨소시엄은 중국 본사 기업 참여를 이유로 공공조달법에 따라 입찰 자격이 박탈됨
- PGE는 해당 업체가 EU와 상호조달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재 기업이라는 점을 배제 사유로 설명
- 최종적으로 SPEC BAU Polska - EL Professional 컨소시엄이 최저가·최고효율 기준을 충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- LG Energy Solution Wrocław는 이번 입찰에서는 탈락했으나, 기존에 Żarnowiec ESS 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
- 그리피노 ESS는 2029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며, 17년간 용량시장 (Capacity Market) 계약을 확보, 완공 시 유럽 최대급 배터리 저장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될 전망
- Żarnowiec ESS 사업은 981MWh·262MW 규모로 추진 중이며, LG Energy Solution이 비스쿠피체 공장에서 설비를 공급

- Żarnowiec 프로젝트 계약금액은 약 1,555백만 즈위티, 2027년 2분기 완공 예정
- PGE는 2035년까지 80개 이상 ESS 구축, 총 저장용량 10GWh 이상 확보를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
- 대형 ESS 프로젝트는 Gryfino, Żarnowiec, Rybnik, Rogowiec, Kraków 등에 집중 배치 예정
- 이와 별도로 2~10MW급 소형 ESS 약 75기를 구축해 분산형 저장 인프라도 확대 계획
- 이번 입찰 결과는 EU 조달 규정과 공급망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인프라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

### ○ 폴란드 글리비체, 12MW급 하수열 히트펌프 구축 2단계 착수(3.3)

- 폴란드 도시 Gliwice는 중앙하수처리장 내 12MW급 대형 히트펌프 구축 사업의 2단계 공사에 착수
- 본 사업은 도시난방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대규모 시스템 히트펌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, 하수열을 활용한 친환경 열원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
- 시행사인 PEC-Gliwice는 2단계 사업 관련 기술 인프라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입찰 공고 발표
-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, 1단계는 히트펌프 본체 조달, 2단계는 기술 인프라 구축, 3단계는 도시난방망 연계 설비 건설로 구분
- 2단계 주요 내용은 설계 문서 작성, 기술동 건설, 하수 이송 펌핑시설, 기초공사, 냉매탱크, 변전설비, 도로 및 배관·전력·통신 인프라 구축 등 포함
- 설치 설비는 2단 압축 시스템과 원심 압축기 2기, 공용 절탄기를 적용해 최대 90℃ 난방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
-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3만5천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, 수천 가구에 난방 공급 가능
- 1단계에서는 산업용 히트펌프 공급사로 Ferox Energy Systems 선정 완료

- 총 사업비는 약 44백만 즈워티이며, National Fu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ter Management(NFOŚiG)의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
  -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4분기로, 시 재정 및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추진 중
  - 본 사업은 '글리비체 그린에너지 파크' 구상의 핵심 사업으로, 대형 태양열 설비, 축열 시스템, 폐기물 연료 열병합 설비 등과 연계 추진 예정
  - 유사 사례로는 Wrocław에서 2024년 가동된 12.5MW급 시설이 핀란드계 기업 Fortum과 협력해 운영 중
- CPK, 전국 철도 통합망(ZSK) 구축 위한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 추진(3.3)
- 폴 교통 인프라 기관 CPK는 폴란드 철도사 PKP PLK와 공동으로 국가 철도 통합망(ZSK) 구축 계획 수립 착수
  - 본 사업은 폴란드 인프라부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장기 철도 인프라 발전 전략으로, 세부 프로그램은 2026년 내 발표 예정
  - 현재까지 약 8,000km 규모의 신규 노선 후보 구간을 분석했으며, 전국 16개 주에서 공청회 및 협의 절차 진행
  - ZSK와 병행해 'Y 노선' 건설이 진행 중이며, Warsaw - Łódź - Poznań - Wrocław을 연결하는 480km 고속철 노선을 구축 중
  - 해당 노선은 최고 시속 350km 운행이 가능하며, 중소도시 접근성 개선도 함께 추진
  - CPK는 전국 철도 시간표 통합안(HRJ)도 병행 수립하며, 장기 목표로 주요 대도시 간 이동시간을 3.5시간 이내로 단축하고, 바르샤바 - 크라쿠프 - 포즈난 - 브로츠와프 구간은 100분 이내 이동 목표 설정
  - 모든 행정구역이 직통 또는 1회 환승 이내로 장거리 철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 계획
  - 본 사업은 발트 3국, 체코, 독일 등 인접 국가와의 국제 연계 노선 조정도 병행 추진
  - 정부 철도 투자 프로그램은 총 12,000km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, 2032년 까지 약 1,800억 즈워티 투입 예정

- 폴란드의 현재 연간 1인당 철도 이용 횟수는 약 12회로, EU 평균(18회) 대비 낮아 향후 20회 수준까지 확대 목표
- 종합적으로, 본 계획은 고속철을 중심으로 전국 철도망을 재편하고, 물류·통근·국제 연계를 강화해 국가 경쟁력과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핵심 인프라 전략으로 평가됨

### ○ 폴란드 슈체친, 유럽 해상풍력 산업 허브 구축 본격화(3.3)

- 폴란드 슈체친에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‘Szczecin Offshore Hub’ 구축 계획이 공식화
- 서포메라니안 주 정부는 지역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‘Offshore Wind Farm Industry Development Program’ 발표
- 주요 사업자로는 Orlen과 PGE가 참여 중이며, PGE Baltica 프로젝트 일부는 차액정산계약(CfD) 확보
- 이번 포럼 계기로 슈체친 소재 Wulkan Szczecin Shipyard, Gotech, Elektryka Morska, Stalkon 4개 기업이 ‘Szczecin Offshore Hub’ 컨소시엄 설립 협약 체결
- 컨소시엄은 해상풍력 구조물, 설비, 전기 설치, 강구조물 등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해 대형 프로젝트 공동 수주 추진
- Wulkan Shipyard는 중국 Dajin Offshore와 협력해 터빈 기초구조물용 플랫폼 공급 계약 체결
- 슈체친에는 Vestas 나셀 조립공장, Windar 타워 공장 건설, 풍력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등 풍력 산업 관련 생태계가 형성
- 슈체친 허브 구축은 항만·제조·서비스를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, 고용 창출, 유럽 공급망 내 입지 강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 평가됨

### ○ 폴 포드카르파치에 주, 기업 대상 에너지저장시설 보조금 공모 개시(3.4)

- 폴란드 포드카르파치에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신규 보조금 공모 절차 개시

- 본 사업은 European Funds for Podkarpacie 프로그램 하에 추진되며, 재원은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에서 조달
- 총 사업 예산은 약 78.7백만 즈워티 규모로, 지역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를 목표로 설정
-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영업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, 전력·가스·열 공급 업종 기업은 제외
- 지원 분야는 전기·열 에너지 저장시설의 신설·확장·구매·설치, 계통 연계,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
-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확대, 에너지 수요 조절, 출력 변동성 완화 및 손실 감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
- 최소 지원 대상 사업비는 2만 즈워티 이상이며, 환경보호 투자보조금 및 소액 보조금(de minimis) 방식 병행 적용
- 최대 지원 비율은 환경보조금 기준 소기업 50%, 중기업 40%, 대기업 30%, de minimis 기준 중소기업 60%, 대기업 40%임
- 신청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접수 마감은 2026년 3월 31일, 평가 결과는 2026년 9월 말 발표 예정이나, 필요 시 일정 연장 가능
- 본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의 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생 에너지 활용 효율을 제고하고,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짐

○ PKP SA, Częstochowa, Dęblin, Otwock 역 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(3.4)

- 폴란드 국영철도 PKP SA는 Centre for EU Transport Projects와 철도역 재건 공동 재원 협약 2건을 체결하고 주요 역사 현대화 사업 착수
- 지원 대상 도시는 Częstochowa, Dęblin, Otwock 등 3곳
- 총 사업 규모는 약 155.5백만 즈워티이며, 이 중 132.2백만 즈워티는 EU 재원으로 조달
- EU 재원은 European Funds for Infrastructure Climate Environment 2021-2027(FEnIKS)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며, 잔여분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
- Dęblin, Otwock 사업은 약 40백만 즈워티가 배정되었으며, 역사 건물

리모델링, 외관·지붕 보수, 이용객 공간 개선 및 주변 교통 인프라 정비 포함

- Otwock역은 2025년 8월 착공, 2027년 초 개통 예정으로 역사적 외관 보존과 현대화 병행 추진
- Dęblin역은 설계 완료 후 2026년 2월 시공 입찰 개시, 2027년 4분기 준공 목표
- Częstochowa 중앙역 사업은 약 115.5백만 즈워티 규모로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동측 건물 철거·신축, 지하통로 및 서측 구역 재건, 버스 환승센터 구축 포함
- Częstochowa역은 2025년 5월 착공 후 현재 약 27% 진행, 2027년 말 완공 예정
- 모든 역사는 철도·버스·자전거 등과 연계된 복합 환승 거점으로 개발 될 계획
- 본 사업은 노후 철도 인프라 현대화, 교통 접근성 개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·EU 공동 교통 투자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

#### ○ PGE, 가스발전소 2기 건설에 60억 즈워티 이상 투자(3.4)

- PGE는 실레시아 지역 Rybnik과 북서부 Gryfino에 신규 가스발전소 2기 건설 계약 체결
- 총 사업비는 60억 즈워티 이상이며, 재생에너지 출력 감소 및 전력 피크 대응용 설비로 활용 예정
- 시공은 Polimex Mostos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Siemens Energy 그룹이 담당
- Polimex Mostostal CEO Jakub Stypuła는 총 발전용량 약 1,200MW 규모의 핵심 안정화 사업이라고 설명
- 신규 설비는 각 588MW 규모의 개방형 가스터빈(OCGT) 방식으로, 신속 기동·피크 대응에 특화
- 상업 운전 개시는 2029년 예정이며, 2024년 용량시장 경매를 통해 15년 장기 계약 확보
- 리브니크 지역에는 이미 882MW급 복합화력(CCGT) 설비 건설이 진행

중이며, 2027년 초 가동 목표, 신규 설비 포함 시 총 1.5GW 규모 가스 허브로 전환될 예정

- 그리피노 지역 Dolna Odra Power Plant는 2024년 1,366MW급 CCGT 설비가 이미 가동 중
- PGE는 2025~2035년 가스발전에 약 370억 즈워티 투자, 총 10GW (이 중 OCGT 6GW) 구축 목표 수립
- PGE 외에도 Energa, Tauron, Enea 등 폴란드 주요 에너지 그룹도 유사 가스발전 투자 확대 중
- 본 사업은 석탄 발전 감축과 원전 도입 이전 과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, 폴란드 전력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됨

### ○ 폴란드 첫 원전 건설 협상, 2026년 중반 타결 목표(3.6)

- 폴 국영 원전기업 Polish Nuclear Power Plants(PEJ)와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-Bechtel 컨소시엄은 폴란드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협상을 2026년 중반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
- PEJ CEO Marek Woszczyk는 해당 프로젝트가 현재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며 실제 건설 단계 진입을 앞둔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
- 특히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의 공공지원 승인 결정 이후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강화되었으며, 금융기관의 투자 관심도 확대
- 사업 구조상 전체 사업비의 약 70%는 부채 금융으로 조달될 예정
-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중 원전 건설 핵심 절차인 기술 인허가를 시작할 계획이며, 관련 서류를 이달 중 폴란드 국가 원자력청(PAA)에 제출할 예정
- 첫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기술을 적용해 Choczewo 지역에 건설되며, 총 설비용량은 3,750MW 규모
- 프로젝트는 건설·시운전·운영 등 단계별로 PAA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보호 기준 검증을 거쳐 허가가 진행될 예정
- 현재 준비 단계에서 약 400건의 계약이 폴란드 기업과 체결되었으며, 발주 규모는 약 3억 즈워티 수준

-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2천억 즈위티로 추산되며, 향후 건설 단계 진입 시 국내 기업 참여 확대 및 공급망 편입 기회가 확대될 전망
- 본 원전은 유럽 최초의 AP1000 기술 적용 프로젝트로 향후 유럽 내 추가 원전 건설 시 폴란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됨
- 첫 번째 원전 호기는 2036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, 폴란드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안정성 확보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

○ 폴 원전 건설, Doraco 참여하며 폴 기업 역할 확대 및 기술 역량 강화(3.4)

- 폴 건설 기업 Doraco는 미국 Bechtel과 계약을 체결, 폴란드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지반·지질 조사 지원과 관련 건설 작업을 수행
- 계약 범위에는 육상, 해안, 해역 전반의 지질·지반 조사가 포함되며, 약 1,000개 탐사정 시추는 2026년 5월 시작해 2027년 2분기 완료 예정
- Doraco는 조사 수행을 위한 필수 시설과 현장 인프라를 구축하며, 구체적으로는 임시 사무실 및 유틸리티 제공, 연료·기술 지원, 13개 시추 플랫폼 설치, 임시 접근로 건설, 물류·의료 지원 등을 담당
- Bechtel Polska CEO Hołda는 “Doraco와의 협력으로 지질조사 기반 설계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”고 평가
- Doraco CEO Cieślowska는 “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국내 핵심 인프라 구축 경험, 폴란드 공급망 역량, 기술 노하우가 확보된다”고 강조, 장기적으로 자국 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Doraco는 35년 경력의 종합 건설사로, 항공·체육시설·방위·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, 최근에는 Ustka·Łeba·Świnoujście 등 해상 프로젝트, Warsaw Trade Center 공항 관제탑, Pomeranian Medical University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
- 이번 참여로 폴란드 기업이 원전 건설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,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고, 향후 유럽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후속 원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

### ○ ARP,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 생산 확대 위한 5개 바이오가스 플랜트 투자 추진(3.6)

- 폴란드 산업개발청(ARP)이 운용하는 투자 펀드 Polski Zielony Fundusz(PZF)는 총 233백만 즈워티(약 54백만 유로)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인수·확장 프로젝트에 투자 결정
- PZF는 해당 사업에 약 55백만 즈워티를 직접 투자하며, 추가로 약 116백만 즈워티는 은행 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
- 본 프로젝트는 기존 바이오가스 설비 5개를 인수하고 설비를 확장·전환해 바이오메탄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
- 사업은 현지 바이오가스 운영기업 Neo Bio Energy(NBE)와 협력하여 추진되며, 개별 발전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지주회사 설립도 병행 추진 예정
- NBE는 약 20년간 매립지 바이오가스 기반 발전사업을 운영해온 기업으로, 최근 농업 부산물 기반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사업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
- 특히 최근 폐기물 기반 바이오메탄 생산 플랫폼을 독일에서 인수해 기술 및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, 기존 바이오가스 설비를 바이오메탄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모델을 강화 중
-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국영 투자기관과 민간 운영사의 협력 모델을 통해 바이오가스 설비 통합 운영, 기술 고도화 및 산업 규모화를 추진하는 사례로 분석됨

### ○ Orlen Neptun, 900MW 해상풍력 'Baltic East' 설계·인허가 단계 착수(3.9)

- Orlen 그룹의 해상풍력 자회사 Orlen Neptun은 900MW 규모 'Baltic East'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사전설계 및 인허가 준비 단계(FEED)에 착수
- 설계·엔지니어링 작업은 Projmors ASE Group, Ramboll Polska, Enprom 컨소시엄이 수행하며, 기술 사양 수립·예비설계(FEED)·건설허가 취득 등을 담당
- FEED 단계에서는 전체 해상풍력 단지의 기술 문서와 상세 투자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며, 이를 기반으로 향후 건설 설계 및 인허가 신청이

## 진행될 예정

-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는 Geofizyka Toruń, Maritime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zczecin, Naval Academy 등 다수 폴란드 기업·연구기관이 참여해 폴란드 내 산업 생태계 활용 확대
  - Baltic East 프로젝트는 2025년 12월 폴란드 에너지규제청(URE)이 실시한 첫 해상풍력 경매에서 낙찰되며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진입
  - Orlen은 동시에 Odra Bank 해역 4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'Baltic West'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병행 개발 중
  - Orlen Neptun은 폴 기업들의 설계 단계 참여 확대가 폴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·공급망 역량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
  - 본 프로젝트는 Orlen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도 연계되며,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 12.8GW 확보 목표 달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
- **Orlen, Polimery Police 공장 인수 및 재가동 투자 가능성 검토(3.10)**
-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Orlen이 화학단지 재가동을 위해 Polimery Police plant 인수 및 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
  - 해당 공장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, 기존 운영사인 Grupa Azoty의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
  - Orlen은 공장 인수 제안을 이미 제시한 상태이며, 향후 인수 성사 여부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음
  - 서포메라니안 주지사인 Geblewicz는 현재 구조조정 절차에서 은행 등 채권단이 채무 일부 감면을 수용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
  - 공장 재가동을 위해서는 수억 즈워티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
  - 지역 정부는 자본력과 산업 경험을 갖춘 대형 기업만이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Orlen이 가장 현실적인 투자 주체로 판단
  - 특히 Orlen은 기존에 폴리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생산·판매 네트워크와 고객 기반을 보유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
  - Polimery Police 프로젝트는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된 대형 산업 투자 사업이나, 현재 가동 중단되며 지역 산업과 고용에

부담 요인으로 지목됨

- 향후 채권단 합의와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Orlen의 인수 및 추가 투자 여부가 결정될 전망
-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금융채무 상환 위해 3,030만 유로 인출(3.10)
  - 폴 은행 Bank Pekao가 Grupa Azoty Polyolefins 계좌에서 약 30.3백만 유로를 채권 회수 형태로 인출했다고 모회사 Grupa Azoty가 공시
  - 해당 자금은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금융계약에 따른 만기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
  - 은행은 프로젝트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담보권자로서, 보증금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을 상계(offset) 방식으로 회수
  - 인출된 자금은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계약 이행 문제와 관련해 확보된 보증금 일부로,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
  - 2025년 8월 회사는 프로젝트 EPC 계약 지연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약 111.8백만 유로의 지연 배상금(계약상 벌금)을 부과하고 총 107.5백만 유로 규모 보증금을 확보
  - 이후 금융기관들은 약 76.8백만 유로를 먼저 회수했으며, 이번 30.3백만 유로 인출은 해당 보증금 잔여분을 정산하는 절차
  - Polimery Police 프로젝트는 연간 약 43만7천 톤의 폴리프로필렌(PP)과 약 42만9천 톤의 프로필렌 생산을 목표로 하는 대형 석유화학 단지
  -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는 약 15억 유로로, 이 중 약 12억 유로가 설비 건설 및 라이선스 확보 등 자본적 지출로 구성
  - 프로젝트 금융에는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주요 참여 기관에는 Alior Bank, BGK, BNP Paribas Bank Polska, EBRD, Santander Bank Polska 등 포함
  - 또한 해상으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·화학 원료 수입 터미널도 프로젝트 구성 요소로 포함
  - 현재 프로젝트는 시공사 계약 해지 및 재무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

중이며, 동시에 Orlen의 지분 인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음

- 종합적으로 이번 채권 회수는 프로젝트 금융 구조에 따른 정상적인 채무 정산 절차로, Polimery Police 사업의 구조조정 및 잠재적 투자자 참여 여부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평가됨

○ **ALSTOM, 신공항 고속철도 터널 철도교통제어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(3.10)**

- 프랑스 철도기술 기업 Alstom이 PORR Polska와 계약을 체결하고 Łódź 도심 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철도 교통제어 시스템(SRK) 구축을 담당
- 해당 사업은 폴란드 국가 대형 교통 프로젝트인 CPK 프로그램의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
- Alstom은 터널 구간의 철도 교통제어 장비 설계·설치 및 Łódź Widzew 철도역 구간과의 시스템 통합을 수행
- 적용 기술은 Alstom의 Onvia™ 메인라인 신호 시스템 포트폴리오로, 철도 네트워크의 안전성·운영 효율성·디지털화 수준 향상을 목표
- 해당 터널은 직경 약 14m, 길이 약 4.6km 규모로 도심 지하 25~35m 깊이에 건설되며 고속철 열차가 도심을 통과하도록 설계
- 터널 구간은 고속철도 노선 Railway Line 85(일명 Y 노선)의 핵심 구간으로, 향후 Warsaw - Łódź - Poznań - Wrocław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
- 계획에 따르면 2032년까지 바르샤바와 신규 국가공항을 Łódź와 연결하고, 2035년부터는 포즈난·브로츠와프까지 고속철 운행이 가능할 전망
- 해당 노선은 유럽 교통망인 TEN-T North Sea - Baltic Corridor의 일부로 유럽 주요 물류·교통 축과 연계
- Alstom은 과거 이탈리아 Bologna - Florence high-speed railway(최대 300km/h) 등 고속철 노선에 ERTMS/ETCS Level 2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 보유
- 해당 기술은 열차와 선로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속도 제어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도망 수송 용량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역할 수행
- 폴란드에서는 이미 10개 철도 노선에 ERTMS Level 2를 구축했으며 30개

이상의 중앙집중식 교통제어센터(CTC), 220개 이상 역 신호 시스템, 1,700개 이상의 철도 건널목 신호 설비 구축 경험 보유

- 이번 계약은 CPK 중심 고속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핵심 디지털 신호 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으로, 폴란드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과 유럽 철도망 통합을 가속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됨

#### ○ Tauron, 23.8MW 규모 Sieradz 육상풍력 발전단지 상업 가동(3.11)

- 폴 전력기업 Tauron이 Sieradz 지역에 총 23.8M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 단지를 준공하고 상업 운전을 개시
- 해당 단지는 8기의 풍력터빈으로 구성되며, 연간 설비 이용률 기준 약 3,300MWh/MW의 높은 발전 효율이 예상
- 발전량 기준 약 4만 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, 국가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기여 전망
- Sieradz 풍력단지는 Łódź 주에서 추진 중인 3개 풍력 프로젝트 중 두 번째로, 2022년 가동된 Piotrków Trybunalski(30MW)에 이어 운영되며, Nowa Brzeźnica(19.6MW) 단지는 2026년 3월 말 가동 예정
- 현재 Tauron은 총 15개 풍력단지(562MW)와 6개 태양광 발전소(255MW)를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 중
- 또한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육상풍력 프로젝트(190.8MW)를 비엘코폴스키에 주에서 건설 중이며, 총 53기 터빈 중 30기가 이미 설치 완료
- Tauron은 신규 풍력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에너지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고자 함

#### ○ PGE, RWE로부터 해상풍력 프로젝트 'FEW Bałtyk II' 인수 완료(3.11)

- 폴란드 국영 전력기업 PGE가 독일 에너지기업 RWE가 개발한 350M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FEW Bałtyk II offshore wind project의 100% 지분 인수를 완료
- 인수 조건이 충족되면서 프로젝트는 PGE 자회사 Baltica 9로 이전 되었으며, 해당 자회사는 인근 975M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

## 개발도 진행 중

- PGE는 두 프로젝트를 통합 개발해 약 1,325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'Baltica 9+'로 추진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개발·운영 시너지 창출 기대
- FEW Bałtyk II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상풍력 1단계(Offshore Phase I) 제도에서 차액정산계약(CfD) 지원을 확보한 상태
- Baltica 9 역시 2023년 12월 폴란드 에너지 규제청 URE가 실시한 첫 해상풍력 경매에서 차액 정산계약(CfD)를 획득
- PGE의 이번 인수는 해상풍력 포트폴리오 확대와 발트해 해상풍력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강화하는 핵심 투자로 평가됨

## ○ Orlen, Grupa Azoty Polyolefins 지분 100% 인수 제안 제출(3.12)

- Orlen은 GAP 잔여 주주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GAP 지분 전량 인수를 위한 업데이트된 비구속(non-binding) 제안을 제출했으며, 현재 Orlen은 GAP 지분 17.3% 보유
- 제안은 부채와 담보가 없는 상태(cash-free, debt-free) 기준으로 GAP의 모든 주식과 자산을 인수하는 구조
- Orlen은 GAP 채무 및 청구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제공과 동시에 잔여 주주 지분 전량 매입을 추진
- 총 제안 규모는 약 1,140백만 즈워티이며, Orlen이 투자금 회수 이후 최대 12년간 GAP의 향후 긍정적 현금흐름에 연동된 earn-out 조항 포함
- 거래 성사 조건으로 ▲GAP의 채무조정 절차 및 채권 감면 합의 완료 ▲EPC 건설계약 최종 정산 ▲모든 주주와의 지분 매매 계약 체결 ▲필요한 기업 및 행정 승인 확보 등이 제시
- 제안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, 거래 완료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 30일
- 이번 인수 추진은 ORLEN '2035 전략'의 폴리머·석유화학 가치사슬 선택적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, 석유화학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목적

## ○ 일본 Frigo Logistics, 폴 최대 냉동물류센터 확장 및 운영(3.11)

- 일본 Nichirei 그룹 계열사인 Frigo Logistics는 Radomsko 물류센터 확장을 완료하며 폴란드 내 최대 시설로 운영 개시
- 이번 확장은  $-22^{\circ}\text{C}$  온도 유지 2개 창고를 신설하여 총 창고 면적  $17,000\text{m}^2$ , 팔레트 수용량 40,000개로 확대, 기존 대비 16,000개 추가
- 시설 내 최신 기술 적용, 모바일 고층랙(7단계), 지능형 냉각 시스템, 835 kWp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, 냉각기 열 회수로 사무동 난방 활용
- 추가로 Radomsko 특수경제구역 내  $64,000\text{m}^2$  인접 부지를 15백만 유로에 매입, 향후 확장 및 장기 투자 여력 확보
- 이번 Radomsko 확장은 2025년 Nowy Dwór Mazowiecki 냉동센터 개장에 이어 Frigo의 폴란드 내 연속적 대규모 투자 사례로 평가
- Frigo Logistics는 현재 폴란드 10개 시설 운영, 총 90,000 팔레트 저장 가능, 직원 700명 이상, 자체 차량 60대 및 외부 협력 운송 차량 450대 운영
- 냉동물류와 온도 제어 제품 운송 분야에서 일본 내 1위, 글로벌 5위 기업으로, 폴란드 시장 내 성장 잠재력 및 전략적 중요성을 지속 강화 중

### ○ 덴마크 Ammongas, 폴란드 바이오메탄 시장 진출 추진(3.11)

- 덴마크 바이오가스 기업 Ammongas는 폴란드를 전략적 시장으로 지정하고 기술 교육 및 현지 지식 이전을 통해 바이오메탄 시장 개발을 본격화
- 2025년 Ammongas 설치 설비는 총 6개국(덴마크, 독일, 핀란드, 노르웨이, 미국, 스웨덴)에서 4억 2,500만  $\text{Nm}^3$ 의 바이오메탄 생산 성과 달성
- CEO Jaime Casaus-Bribian은  $\text{CO}_2$  정제 및 액화 기술을 통한 e-연료용 고품질 바이오메탄 확보와 현지 기술 역량 강화가 핵심 전략임을 강조
- 폴란드 현지 인력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설 예정(2026년 3월 17~18일), 현장 방문과 실습 병행으로 기술 이해 및 안전 운영 능력 강화 목표
- 핵심 기술은 아민 기반 바이오가스 처리 기술로,  $\text{CO}_2$  와 메탄 분리 효율이 높고 운영 비용이 낮아 바이오-LNG 생산과 산업·중장비 운송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
- 2025년에는 덴마크 Tønder 바이오가스 플랜트  $\text{CO}_2$  액화 설비 가동(연간

48,000톤)하였으며, e-메탄을 생산 공급이 가능해짐

- 노르웨이, 미국, 덴마크 등 4건 대형 계약 체결, 이탈리아 CO<sub>2</sub> 포집 프로젝트 기술 준비 완료, 호주 펄프·제지 산업 프로젝트 착수, 캐나다 첫 투자 진행
- 2002년 설립 이후 Ammongas는 전 세계 약 80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, 폴란드 시장 진출을 통해 중앙·동유럽 바이오메탄 기술 리더십 강화 및 장기 파트너십 구축 계획

○ 스웨덴 Saab, 폴란드 잠수함 사업 'Orka' 관련 방산 협력 확대(3.13)

- 스웨덴 방산기업 Saab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및 민간 방산기업 WB Group과 신규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폴란드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인 'Orka 프로그램' 관련 협력을 확대
- PGZ와의 협정은 잠수함 유지·보수·정비(MRO) 역량을 폴란드 내에서 구축하는 산업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WB Group과는 자율 해양 시스템 및 Gladius 무인 플랫폼, Future Task Force 차량 등 무인·자율 전력 분야 협력이 주요 내용
- 이번 협력은 2025년 9월 시작된 양국 방산 협력의 후속 단계로,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와 실비아 왕비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체결
- 폴란드와 스웨덴 국방장관 회담 이후 폴란드 정부는 잠수함 3척 도입 절차가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확인
- 폴란드는 2024년 11월 Orka 프로그램을 통해 스웨덴으로부터 최신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, 이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 중 하나
- Saab 제안 모델은 Saab-Kockums가 건조하는 A26 Blekinge급 잠수함으로, 디젤-전기 추진 방식과 공기불요추진(AIP) 시스템을 갖춘 모듈형 설계가 특징
- A26 잠수함은 533mm 어뢰 발사관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하며, 수중 드론 발사 및 특수부대 은밀 투입이 가능한 다목적 도크를 갖춘 것이 특징
- 현재 폴란드 해군은 1985년 구소련에서 건조된 노후 잠수함 ORP Orzeł 1척만 운용 중으로, 퇴역 시 잠수함 전력 및 승조원 훈련 능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

####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##### ○ 일본, 우크라이나 긴급 복구 지원에 62억 엔 추가 지원(2.26)

-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긴급 재건 수요 대응을 위해 62억 엔 (약 41백만 달러) 규모의 무상 지원을 결정
- 이번 지원은 지방 인프라, 보건의료, 농업, 공영방송 등 핵심 사회·경제 부문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
-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 겸 지역사회·영토개발부 장관인 Kuleba와 주우 일본대사 Nakagome는 긴급 복구 프로그램 5단계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
- 본 협약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공식 무상원조 협력의 일환으로, 세부 사업 확정을 위한 후속 협정 체결의 기반을 마련
- 지원금은 일본 국제협력기구인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(JICA)를 통해 집행될 예정
- 주요 지원 분야는 ▲지방자치단체 인프라 복구 ▲의료 서비스 강화 ▲농업 생산·유통 지원 ▲공공방송 체계 유지 등 4개 영역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전력·수자원·보건·미디어 등 국가 안정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
- Kuleba 부총리는 “본 협약을 통해 인프라뿐 아니라 의료·언론 분야 까지 포함한 국가 안정성 강화가 가능해질 것”이라고 강조
- 일본은 2023년 이후 긴급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 약 1천억 엔 규모의 재건 지원을 제공
- 기존 지원을 통해 잔해 제거 장비, 발전기, 모듈형 교량, 철도 복구 자재, 상수도 설비, 의료장비, 농업 기자재 등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급
- 이번 5단계 지원은 기존 지원 성과를 기반으로,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 정상화 및 필수 서비스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
- 종합적으로, 일본의 이번 추가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단기 복구와 중장기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재정·기술 협력 사례로 평가됨

##### ○ 우 최대 석유화학기업 Karpatnaftokhim, 16억 흐리우냐 부채로 파산

## 절차 개시(3.2)

-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상업법원은 2026년 2월 27일 Karpatnaftokhim LLC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를 공식 결정
- 본 절차는 국영 수출입은행인 Ukreximbank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었으며, 2021년 체결된 대출계약 관련 채권 약 12.9억 흐리우냐(약 433억원)가 주요 사유
- 칼루시 열병합발전소 운영사 Kostanza도 에너지 공급 대금 미지급 3.2억 흐리우냐(약 107억원)을 이유로 파산 신청에 참여
- 전체 채권 신고액은 약 16억 흐리우냐(약 537억원)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
- 법원은 절차 개시와 함께 자산관리인(파산관재인)을 지정하고, 채권자 명부 작성 및 재무상태 분석에 착수
- Karpatnaftokhim은 2004년 칼루시 소재 Oriana 공장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형 석유화학 단지로, PVC·폴리에틸렌·염소·가성소다·에틸렌·프로필렌 등을 생산
-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최대 PVC 및 폴리에틸렌 생산업체로, 건설·배관·포장 산업의 핵심 공급처 역할 수행
- 2017년까지는 러시아 에너지 그룹 Lukoil이 지배했으나, 제재 이후 네덜란드 법인으로 매각
- 전면전 발발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으며, 2022년 10월 탈세·자금세탁 혐의로 자산이 압류됨
- 이후 자산은 우크라이나 국가자산관리청에 이관되었으나, 실질적 정상 운영에 실패
- 압류 조치는 2023년 12월 해제되었으며, 2024년 6월 신규 투자자 Veselyi가 약 100만 달러 미만에 33% 지분 인수, 이는 과거 자산 가치 대비 대폭 할인된 수준으로, 기업 가치 급락을 반영
- 일부 언론은 경영권 변경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도했으며, 관련 인물로 Andrii Yermak 전 대통령실장이 거론, 해당 인물은 2025년 11월 해임됨

- 전문가들은 본 사안을 전쟁 장기화, 에너지 집약 산업 위축, 복잡한 소유구조, 사법 리스크가 결합된 구조적 사례로 평가
- 향후 기업 정상화 여부는 채무조정 가능성, 신규 전략 투자자 유입, 정부·채권단 협상에 따라 결정될 전망
- 청산으로 전환될 경우, 우크라이나 핵심 석유화학 자산이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 존재
- 종합적으로, Karpatnaftokhim 파산은 전시 경제환경 속 대형 산업 자산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, 국가 산업·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됨

### ○ Kernel, 2028년까지 600MW 친환경 발전에 4억 달러 투자 계획(3.2)

-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기업 Kernel은 2028년까지 풍력·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600MW 구축을 목표로 약 4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
- Kernel CEO Osypov는 “에너지 사업 진출은 핵심 전략이며, 현재 확보된 유동성이 신규 투자의 기반”이라고 강조
- Kernel은 2018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해 약 2.3억 달러를 열병합 발전에 투자했으며, 2026년 초 기준 전 사업장이 자체 재생에너지로 전력 자급 달성
- 향후 전력 생산뿐 아니라 전력 판매 사업자로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,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과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구축 병행 계획
- 2025년에는 20MW 규모 태양광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동
- 신규 투자 재원은 자체 자금 중심으로 조달하되, EBRD 등 국제금융 기관과 외부 금융 협상도 병행 중
- Kernel은 35만8천 헥타르 농지, 자체 가공시설 및 물류선단을 보유한 우 최대 농산물 수출 기업으로, '24/'25 회계연도 실적은 ▲매출 41억 달러(+15%), ▲순이익 238백만 달러(+42%)
- 2026년 1월부터 병입 식용유 생산 전력을 해바라기 껍질 바이오에너지로 전면 전환 완료
- Kernel의 에너지 사업 확대는 ▲EU 전력시장 통합 ▲에너지 자립도

강화 ▲ESG 요구 확대 대응을 위한 전략적 다각화로 평가

- 계획대로 600MW 구축 시, Kernel은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
- 우 KNESS, 40백만 달러 투자로 대형 에너지저장시설 구축 완료(3.3)
  -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KNESS는 총 40백만 달러를 투자해 140MWh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(BESS) 구축 완료
  - 본 프로젝트는 2025년 가을까지 완공되었으며, 자체 자금과 파트너 투자금을 병행 조달해 추진
  - 해당 저장시설은 2025년 10월부터 주파수 유지 예비력(FCR) 및 자동 주파수 복구 예비력(aFRR) 서비스를 제공하며, 우크라이나 내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 단지 중 하나로 평가
  - 사업 추진은 2024년 실시된 정부 주관 특수 전력시장 경매 낙찰을 통해 제도적 기반 확보
  - 전면전 이후 KNESS는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화에 성공
  -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설비에 직접 투자해 기업 대상 전력 공급자로 참여하는 '투자자 겸 전력공급자' 모델을 도입하며, 산업체 대상 장기 전력공급(PPA) 기반 수익 구조 다변화 추진
  - 종합적으로, KNESS의 대형 BESS 구축은 우크라이나 전력 시스템의 복원력 제고, 계통 안정화, 민간 주도 에너지 전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한 전략적 투자 사례로 평가됨
- 우, 2025년 풍력발전 320MW 이상 신규 구축으로 산업 회복 본격화(3.3)
  - 우크라이나 풍력 에너지 협회에 따르면,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총 324.4M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가 신규 건설되며 풍력 산업 회복세 본격화
  - 이 중 약 138MW는 2026년 초 기준 이미 계통에 연계돼 전력 공급을 개시
  - 2023년 신규 설치 용량(146.3MW) 및 2024년(20MW) 대비 대폭 확대되며, 전쟁 이후 최대 연간 건설 실적 기록

- 2025년 단일 연도 건설 규모는 전쟁 기간 전체 누적 설치량과 유사한 수준으로, 민간 투자 회복 신호로 평가
- 2025년 말 기준,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 내 해당 협회 회원사의 운영 풍력 설비는 총 928.9MW 규모이며, 약 1.32GW 규모 설비는 일시 점령 지역에 위치해 정상 운영에 제약 존재
- 풍력 시장 구조도 변화 중으로, 전쟁 이전 대형 전문 개발사 중심 구조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 투자자 참여로 확대
- 신규 투자자들은 풍력을 자사 사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해 에너지 자산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, 신규 프로젝트 설계 시 글로벌 주요 제조사의 최신 고효율 터빈 및 기자재 활용 비중을 확대
- 본 성과는 전시 상황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함

#### ○ 우크라이나 - 일본, 전후 재건·재정지원 협력 확대 논의(3.3)

-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Marchenko는 방일 기간 중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(JICA) 총재 Tanaka와 회담을 갖고 재건 사업 및 신규 협력 분야를 논의
- 양측은 일본의 재건 지원 자원을 우크라이나의 핵심 복구 프로젝트와 연계하고, 추가 예산 지원 방안을 조율
- 중소기업의 일본산 장비 도입 및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수단 신설 방안도 검토
- JICA는 기술협력, 공적개발원조(ODA) 차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 및 재건 지원을 지속·확대할 방침 재확인
- 일본은 2022년 JICA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581백만 달러 규모의 양허성 예산 금융 지원 제공
- 2025년 Marchenko 장관과 우크라이나 JICA 대표 Matsunaga는 약 4,719억 엔(약 30억 달러) 규모 차관 협정 체결
- 해당 차관 중 544백만 달러 1차분은 2026년 2월 이미 집행 완료
- 차관 상환 재원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을 활용하며, G7이 추진하는 총

500억 달러 ERA(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) 대출 계획의 일환

- 일본은 2023년 이후 긴급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1,063억 엔(약 738백만 달러) 이상의 무상 원조도 지원
- Marchenko 장관은 도쿄에서 일본 재무장관 Katayama와도 회담을 갖고 ERA 이행 및 공동 재건 프로젝트 협력 논의
- 이번 협의는 일본의 재정·금융·산업 연계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과 민간경제 회복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협력 강화 사례로 평가됨

○ 우 헤르손 열병합발전소 복구 대신 분산형 난방체계 전환 추진(3.4)

- 헤르손 지역 군사행정청 수장 Prokudin은 현재 상태의 열병합발전소 복구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
- Prokudin은 중앙집중형 난방 대신 분산형 열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, “노후 발전소는 현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, 공격에 취약한 단일 대형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비효율적”이라고 지적
- 대안으로 소형 모듈형 보일러 유닛을 설치해 ‘에너지 섬(island)’ 방식으로 지역별 독립 난방망 구축 추진
- 예비 계획에 따르면 Kherson 전역에 총 59기의 모듈형 보일러 설치 예정이며, 이 중 32기는 기존 열병합발전소 기능을 대체하고, 나머지는 헤르손 주 열 에너지 관할 시설에 공급
- 개별 보일러 설비 용량은 0.2~5MW 수준으로, 지역별 수요 맞춤형 운용 목표
- 헤르손 열병합발전소는 2025년 12월 3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으로 거의 전면 파괴된 바 있음
- 이번 방침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극복하고, 전시·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 전략으로 평가됨

○ 우 의회, 폴 국영개발은행 BGK의 우크라이나 특별 지위 부여 협정 비준(3.5)

- 우 의회는 폴 정부와 체결한 정부 간 협정을 비준하여 폴란드 국영

개발은행 BGK의 우크라이나 내 활동에 국제협정 기반의 특별 법적 지위를 부여

- 해당 협정에 따라 BGK의 우크라이나 금융활동은 우 국내법보다 상위 효력을 갖는 국제협정의 보호를 받게 되며, EU의 Ukraine Facility 자금을 활용한 우대 금융 메커니즘 운영이 가능해짐
- BGK는 독일 개발은행(KfW), 프랑스 개발금융기관(AFD) 등 기존 유럽 개발금융기관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체계 내 제도적 기반을 강화
-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본 이동 제한 또는 지급 규제가 시행 되는 상황에서도 BGK 관련 자금 이동 및 우크라이나 차입자의 대출 상황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
- 또한 BGK의 포트폴리오 보증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으로부터 다른 국제 개발금융기관의 보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예정
- BGK가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우크라 공공조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, 금융 활동은 우크라이나 은행법이 아닌 폴란드 및 EU 금융 규정을 적용받게 됨
- 외환 송금 및 자금 이전과 관련한 제한에서도 면제되어 환전 및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전망
- BGK는 우크라이나 내 대표사무소 설립, 인력 채용, 계약 체결 및 협상 등 금융·투자 관련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
- BGK는 유로존 외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EU 집행위원회의 'Pillar Assessment' 인증을 획득해 EU 재원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Ukraine Facility 기반의 보증·대출·보조금·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집행 가능
- 금융지원 규모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5%(약 5백만~50백만 유로) 까지 제공되며, 최대 15년 장기 대출 구조로 운영
-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·EU·EEA·서발칸·조지아·몰도바 등 Ukraine Facility 규정에 부합하는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제한
- 주요 투자 대상 분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부문(발전·송배전·

저장·연료 생산·운송)과 건설자재 생산 중심의 제조·가공 산업

- BGK는 보증, 대출, 혼합금융(보조금+대출), 무상보조금,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며, 기술 자문·엔지니어링 지원·현지 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병행
-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기업 및 지방정부는 에너지, 물류·운송, 제조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가능성, 비용 경쟁력 및 사업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#### ○ EU, 우크라이나 재건 위해 1,630백만 달러 지원 승인(3.9)

- 우크라 Kuleba 부총리는 EU 투자 프레임워크(UIF) 집행위원회가 총 1,630백만 달러 규모 재건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발표
- 승인금 중 약 508백만 달러는 커뮤니티 및 지역개발부 주관 프로젝트에 배정
- 분야별 배분은 ▲철도 인프라 144백만 달러(유지보수 및 연결망 개발) ▲도로 115백만 달러("연대의 도로" 프로젝트) ▲주택 134백만 달러 ("Energodim"·"VidnovyDIM" 프로그램) ▲방공 및 대피소 28.9백만 달러, ▲국경 인프라 74.7백만 달러(서부 국경 현대화) 등으로 구성
- 커뮤니티 프로젝트 외에도 EBRD 프로그램을 통해 분산형 열·에너지 공급 사업에 109백만 달러가 배정되며, 도시 및 민간기업과 직접 협력해 추진
- EU 재정 지원과 EIB 대출을 결합한 구조로,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적 재건 기반 마련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총 재건 필요 규모를 5,880억 달러로 추산, 이 중 향후 10년간 에너지 부문 복구·현대화에 906억 달러 필요
- 이번 지원은 철도·도로·주택·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, 민간·국제 금융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적 재건 조치로 평가됨

#### ○ 오스트리아-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확대,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추진(3.9)

- 키이우에서 열린 제16차 우크라이나 - 오스트리아 경제·무역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확대에 합의
- 우크라이나 측은 오스트리아 기업 참여 및 금융기관·수출신용 지원을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공식화

- 협력 분야는 도로 보수·유지관리, 철도 현대화, 기관차 및 여객 차량 공급 등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및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
  - 특히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드니프로강 수력발전소 건설·현대화 및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기술 및 장비 제공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
  - 양국은 2022년 체결된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이행을 위한 정치 선언에도 서명했으며, 기존 의료 인프라 재건 중심 협력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
  - 이를 위해 재건 우선 프로젝트 선정 및 실행을 위한 공동 실무그룹을 신설해 구체적 사업 발굴 및 조정 진행 예정
  - 오스트리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10대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며, 2025년 6월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
  - 또한 양국은 비엔나 지역 폐쇄 발전소 설비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, 현재 기술적 호환성 및 운송 가능성 평가가 진행 중
  - 이번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유럽 기업과 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·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제 협력 강화 조치로 평가됨
- **우크라이나 System Capital Management,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사업 복구·확대에 약 40억 달러 투자(3.9)**
-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지주회사 SCM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약 40억 달러 규모 투자를 통해 자국 내 사업 복구 및 인프라 재건을 추진
  - 이 중 약 10억 달러는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에너지·기반시설의 긴급 복구에 투입되었으며, 특히 화력발전소 및 전력망 복구에 집중
  - 투자에는 파괴된 시설 복구, 기존 생산설비 현대화, 신규 인프라 건설이 포함되며, 러시아 공격으로 손상된 경제 기반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  - 대표 사례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국가 최대 규모 전력저장시스템(ESS)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

- SCM 산하 기업들은 교통 인프라 및 민간 사회기반시설 복구에도 적극 참여하며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핵심 역할 수행
  - 그룹 주요 계열사는 ▲철강·광업 분야 Metinvest ▲에너지 분야 DTEK ▲은행 First Ukrainian International Bank(FUIB) ▲통신 Ukrtelecom ▲농업 HarvEast ▲철도 물류 Lemtrans 등으로 구성
  - SCM의 대규모 투자는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산업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를 유지·복구하려는 민간 주도의 재건 투자 사례로, 향후 전후 경제 회복과 산업 재건의 핵심 축으로 평가됨
- 리비우 지역 산업단지 매각 추진 및 가구 생산공장 건설 진행(3.9)
-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지역에서 산업단지 매각과 제조시설 신규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며 지역 산업 투자 기회 확대
  - Dobrosyn Invest Industrial Park가 약 75만 달러에 매각 추진 중이며, 총 면적은 14.6헥타르 규모
  - 해당 부지는 산업용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49년 장기 임대 형태로 활용 가능
  - EU 국경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제조시설 및 물류시설 구축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
  -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부지 약 100m 거리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, 인근에 철도 선로가 지나 물류 접근성 확보
  - 한편 Boryslav Industrial Park에서는 신규 가구 생산공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
  - 본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최대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인 Art Metal Furniture(AMF)가 추진였으며, 총 투자 규모는 1천만 달러 이상, 2026년 여름 완공 예정
  - 신규 공장은 약 24,000m<sup>2</sup> 규모로 조성되며 가동 시 약 800명의 고용 창출 기대
  - 또한 2026년에는 동일 산업단지 내 약 12,000m<sup>2</sup> 규모의 추가 생산·물류 복합시설 건설도 계획

- 리비우 지역은 EU 인접성과 산업단지 개발 확대를 기반으로 제조 및 물류 투자 거점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로 평가됨
- **우크라이나, 주요 티타늄 광산 3곳 전자경매 추진(3.10)**
  -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재 대상 기업가 Dmytro Firtash로부터 몰수한 티타늄 광산 3곳의 채굴권을 전자경매 방식으로 공개 매각한다고 발표
  - 해당 광산은 ▲Malyshevske ▲Valky Hatskivske ▲Mezhyrichne로, 모두 민간 기업이 공개 입찰을 통해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
  - 총리는 이번 경매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, 참여 기업들은 자유롭게 입찰을 통해 채굴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
  - 아울러 우크라이나 국영 지질서비스는 활동이 없는 유향 전략 광물 탐사 허가 38건을 검토 중이며, 실질적 개발 여부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
  - 한편,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미국과 전략적 광물 자원 협정을 체결, 미국 기업에 신규 광물 프로젝트 우선 참여권을 제공하며 투자 유치
  - 해당 협정을 기반으로 조성된 우크라이나-미 합작 투자펀드는 20여 개 잠재 프로젝트를 발굴했으며, 상위 8개 프로젝트의 총 사업 규모는 약 12억 달러로 평가
  - 이번 티타늄 광산 전자경매는 전략 광물 개발 투명성 제고와 민간·국제 투자 기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적 조치로 평가됨
- **독일 KfW,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위한 보증 프로그램 추진(3.10)**
  - 독일 국책개발은행인 KfW는 우크라이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
  - 본 사업은 우크라이나의 신규 개발기관인 National Development Agency(NDA)와 협력해 추진되며,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
  - 해당 보증 프로그램은 2026년 여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, 현재 담보 부족으로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
  - 특히 전선 인근 지역 기업, 국내 실향민, 전역 군인 등 전쟁 피해 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

- KfW의 보증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와 은행의 손실충당금 부담 완화 효과 기대
  - 기존에는 German-Ukrainian Fund가 주요 협력 파트너였으며, 해당 기관은 이후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und로 발전
  - 동 기금은 2025년 제정된 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로 NDA로 재편되어 공식 출범
  - NDA는 1948년 Marshall Plan의 일환으로 설립된 KfW 모델을 참고한 우크라이나의 국가 개발금융기관으로 기능할 예정
- 키이우·오데사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항만·철도 물류 허브 투자 기회 제시(3.10)
- 우크라이나에서 폐기물 처리 인프라와 항만·물류 개발을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기회가 제시되며 관련 자산 매각 진행
  - 키이우 인근 Tarasivka에 위치한 연간 최대 5만 톤 규모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춘 폐기물 분류시설이 약 150만 달러에 매각 추진
  - 해당 시설은 1.36헥타르 부지와 함께 완비된 인프라 및 장비를 포함해 매각되며, 즉시 운영 가능한 상태
  - 시설 확장성을 고려한 추가 개발 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며, 1,800㎡ 규모 신규 격납고 건설을 통해 연간 7만 5천 톤 처리능력의 분류라인 2기 추가 설치 가능
  - 한편 오데사 지역에서는 약 100헥타르 규모의 대형 토지가 매각 대상에 포함되며 심해항 및 철도 물류 허브 개발 용도로 제시
  - 해당 부지는 TIS 항만 허브 인근에 위치하며 Pivdennyi 항만 및 Odesa 항만 플랜트와 인접한 전략적 입지
  - 해안 수심이 최대 약 19m에 달해 Panamax 및 Post-Panamax급 선박 운항이 가능해 대형 심해항 개발 잠재력 보유
  - 부지 개발 시 곡물·컨테이너·벌크화물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복합 항만·산업단지 조성 가능
  - 또한 연간 2백만~10백만 톤 규모 화물 환적이 가능한 철도 물류 허브

구축을 위한 예비 설계도 승인된 상태

- 향후 곡물 터미널, 컨테이너 물류센터, 벌크 화물 단지 외에도 에너지·석유·가스 관련 산업 인프라 개발 가능성이 제시됨
- **트럼프 일가,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스타트업 Powerus 투자·상장 추진(3.11)**
  - Eric Trump과 Donald Trump Jr.가 소유한 투자회사 American Ventures가 드론 제조 스타트업 Powerus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
  - Powerus는 플로리다 소재 골프장 운영사 Aureus Greenway Holdings와 역합병(reverse merger)을 완료할 예정이며, 거래 종료 시 NASDAQ에 상장하여 공모자금을 통한 생산·사업 확장 자금 확보 계획
  - 이번 투자에는 트럼프 일가 관련 드론 부품 제조사 Unusual Machines과 투자은행 Dominari Securities도 참여했으며, 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Fund가 약 5천만 달러를 출자
  - Powerus는 최근 6개월간 3개 소형 기업을 인수하며 기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월 1만 대 이상의 드론 생산 체계를 구축 중
  - 또한 우크라이나 현지 드론 제조기업 인수 또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,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확보 전략을 병행
  - 이번 투자는 트럼프 일가가 참여한 민간 자본과 기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,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 활용과 미국 내 상장 기반 생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사례로 평가됨
- **핀란드 Hartwall Invest, 우크라 호텔 투자 회수 단계 진입 및 추가 투자 지속 (3.12)**
  - 핀란드 투자회사 Hartwall Invest는 Leopold Hotel Lviv(5성급 호텔)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 단계에 근접했다고 발표
  - 해당 호텔은 2007년 대규모 리노베이션 이후 개장했으며, 프로젝트 전체 투자 규모는 10백만 유로 이상, 이 중 약 250만 유로는 전면전 이후 진행된 최종 리노베이션 단계에 투입
  -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호텔 매출은 약 200만 유로, 객실 점유율은

53%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고 실적 달성 및 리비우 5성급 호텔 평균 점유율을 상회

- Hartwall Invest는 해당 프로젝트를 전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 장기 투자 사례로 평가
- 회사는 호텔 사업 외에도 우크라이나 농업 분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, 농산물 심층 가공(Deep processing) 기업에 약 250만 유로 투자
- 이번 사례는 전쟁 상황에서도 서방 민간 자본이 우크라이나 서비스·농업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
## 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### 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####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 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  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  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
'26. 2월 태웅로직스 사업 철회

- (주요동향) 사업 파트너사(태웅로직스)의 불참 결정 및 기존 주주단 (DCI·Norfund·EBRD) 중심의 자본금 조달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, 현 시점에서 당사의 신규 지분 참여를 위한 객관적 수행 여건이 소멸된 상황임

#### 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##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### 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 
'20. 10월 금융종결  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  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 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- (주요동향) 현지 SPC(GAP S. A.), 구조조정\*을 위해 중재취하를 위한 협의 진행 중(→현대엔지니어링)  
\* 구조조정 요건 중 분쟁채권 15% 미만인 경우 '합의조정' 가능

### ③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업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 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 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  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 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#### ④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<sup>2</sup>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  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  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 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 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  
'26. 1월 이사회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3월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투자계약 체결(KIND→ZEIT)  
이사회 부의(자회사 설립), SPA 체결(KIND→ZEIT)

\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#### ⑤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<sup>2</sup>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  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 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 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 
'26. 1월 금융종결  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- (주요동향) '26년 3월 Phase II 잔여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</li> <li>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</li> </ul>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</li> <li>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</li> </ul>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</li> </ul>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</li> <li>•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</li> </ul>
보리스 필 항등건 현대화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</li> </ul>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</li> <li>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</li> <li>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</li> </ul>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</li> </ul>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</li> <li>•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</li> </ul>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</li> <li>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</li> </ul>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</li> </ul>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</li> </ul>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</li> <li>• 현지 착수보고회 및 현장조사 수행 예정 ('25.3월)</li> </ul>